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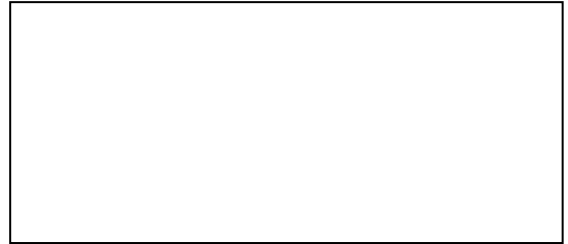
2020 수능 대비 EBS문학 소설 정리 [현대소설 편] (수능특강 : 22편 + 수능완성 : 5편)

제작 지원T

-수능특강-

1. 장마 (윤홍길)

인물 관계도



전체 줄거리

- (1) 국군 소위인 외삼촌(외할머니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 외할머니의 빨치산 저주
- (2) (친)할머니(아들인 삼촌이 빨치산)가 화내고 외할머니와 크게 싸움.
- (3) 어떤 형사의 초콜릿 꼬드김에 넘어가 가족에게 삼촌(빨치산)이 다녀갔다고 함 → 아버지가 지서에 7일간 끌려갔다 오고, 할머니는 '나'에게 격노
- (4) 빨치산 소탕 작전 → 할머니에게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여 할머니만이 삼촌을 기다림.
- (5) 예정일에 삼촌 대신 구렁이가 등장 → 할머니 기절
- (6)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의식(머리카락 태우고 음식 제사)을 하며 구렁이(삼촌의 환생으로 믿음)를 돌려보냄 → 돌이 화해하고, 며칠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장마가 끝남.

*빨치산(partisan) :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여순 사건과 1950년 6·25 전쟁을 거쳐 1955년까지 활동했던 공산주의 비정규군

2.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섭)

인물 관계도



전체 줄거리

- (1) 허 생원은 '봉평 장'(장터)에서 동업자 조 선달과 장사를 마치고 주막으로 감. → 장돌뱅이 청년 동이 : 충춧집에게 수작질 → 허 생원이 동이의 뺨을 때리며 나무란다.
- (2) 동이가 잠시 후 돌아와, 아이들이 허 생원의 당나귀에게 장난을 친 것을 알려줌 → 날이 저물고, '대화 장' 까지 동행하기로 함. → 동이를 뒤로 한 채(동이는 못 들음) 조 선달에게 성 서방네 처녀(동이 엄마)와의 추억 이야기를 함.(조 선달은 매일 같이 듣는 이야기)
- (3) 길이 넓어짐 → 동이가 같이 걸으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 → 허 생원이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함.
- (4) 동이가 어머니가 제천에 있다고 하자, '제천 장'으로 동행을 약속하며 계속 걸음. (→ 동이의 왼손잡이를 봄.)

3. 남한산성 (김훈)

인물 관계도

배경 : 병자호란 (with 삼전도의 굴욕)

김상헌(예판) : 주전파/ 실리 < 명분 / “끝까지 항쟁”

\feat. 당하관들(과거 급제한 애기들) 명분! 현실 감각X

최명길(이판) : 주화파/ 실리 > 명분 / “살아남자, 화친”

인조 : (1) 군사와 백성에 대한 연민, **인간적인** 모습

(2) **우유부단**하여 끝까지 결단하지 못함

전체 줄거리

- (1) 병자호란이 시작되고, 왕과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 → 일단은 항복하자는 입장(최명길)과 대의명분을 위해 끝까지 항쟁해야 한다는 입장(김상헌)으로 신하들이 나뉘어 싸우고, 군사와 백성은 굶주림.
- (2) 청나라의 군사가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분쟁은 끝나지 않음. → 결국 47일 고립 끝에 삼전도로 나아가 청나라 황제(칸)에게 무릎 꿇음. But 세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감. / 백성들은 봄을 맞아 농사일을 하는 것에만 신경 씬.

4. 지형근 (나도향)

★ 지형근(몰락 양반의 후손) → 노동자 but 시대에 적응X

전체 줄거리

- (1) 부잣집(지주)의 아들이었던 몰락 양반 지형근 → 노동자가 되어 철원으로 가는 길에 예전에 소작농이었던, 부자가 된 김서방에게 하대를 받으며 돈을 빌림.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됨.)
- (2)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조 주사에게 이끌려 간 술집에서 동네에 살던 이화가 술집 여자로 일하는 것을 발견. → 멀리하고 비웃으면서도 자신의 현실 처지를 인지하며 / 이화에게 집착하게 됨. → 이화를 보기 위해 친구 돈을 훔치다가 유치장에 갇힘.

5. 아버지의 땅 (임철우)

★ 유골(6.25 피해자 → 아버지 이해 계기) / 철사 줄(유골에 감겨 있던 줄 → 전쟁의 아픔)

★ 아버지(6.25때 좌익 활동(공산주의자)으로 떠남. / 어머니(그런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아버지를 증오하는 '나'와 갈등)

전체 줄거리

- (1) **군인인 '나'**는 복무 중 경계용 구덩이를 파다가 **유골 한 구**를 발견. → 신원 확인을 위해 **동네 노인**을 불렀지만 파악하지 못한 채 수습을 시작. (소대장이 '이 치도 빨갱이었겠지?' 하다가 노인에게 죽은 자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들음.)
- (2) 철사 줄이 감겨 있는 유골을 보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고,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전쟁의 피해자로 재인식하며 연민을 느끼게 되고, 전쟁의 잔혹함을 다시 생각한다.

6. 복덕방 (이태준)

주요 인물 : 세 노인과 딸 (안 초시, 박희완, 서 참의, 안경화(무용))

안 초시 : 과거에는 사업 성공 했었지만, 지금은 딸에게 의존. 딸에게 부동산 투자를 제안(but 사기였음.)→ 자살..

안경화 : 유명한 무용가, 안 초시의 딸. 아버지를 대우X, 사기 사건 이후 책임 추궁 / 멸시

서 참의 : 과거에는 군 관료 → 현재는 복덕방 운영

박희완 : 대서업(서류를 대신 써주는 직업) 준비 중이나 잘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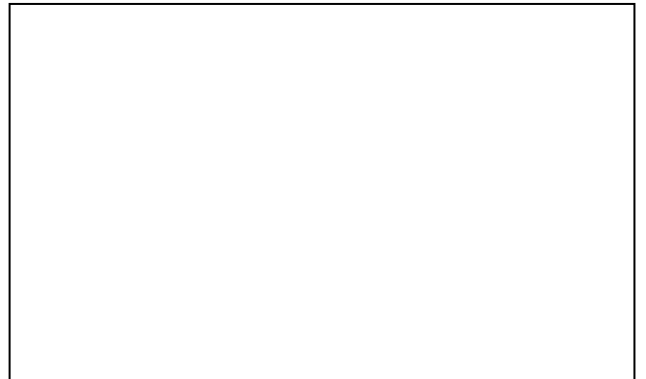
★ 세 노인 다 서 참의의 복덕방에서 지냄. : 복덕방은 세 노인의 '정'이 있는 공간(애정과 연민)

전체 줄거리

- (1) 세 노인은 복덕방에서 지내고 있음. 어느 날 박희완 영감에게서 캐꿀투자 땅 개발 정보를 입수한 안 초시는 딸(안경화)에게 투자를 권하고, 딸은 올인 자신의 돈을 모두 투자. → 사실은 사기였음. → 딸은 모든 책임을 추궁, 경제적 지원 끊음.
- (2) 안 초시는 결국 자살하고, 안경화는 서 참의에게 자신의 명예(유명한 무용가)를 위해 아버지의 자살을 비밀로 부탁.

7. 삼대 (염상섭)

인물 관계도



대략적 줄거리(너무너무너무 길어서 큰 틀 만)

- (1) 조 의관(할)은 큰 돈을 사서 양반과 족보를 사고, 신분적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함. 어린 첩(수원집)을 들이고, 조상훈(아들)내외를 내보낸다. 수원집과의 4살 어린 딸이 있다. 수원집은 아들이 없어서 덕기(손)의 아들을 질투한다.
- (2) 위선자인 조상훈(아들)은 미국 유학을 마친 인텔리 + 신실한 기독교 신자처럼 보이고, 기독교/교육 사업에 투자 및 민족 운동가의 가족을 돌봄. → 그 운동가의 딸이자 덕기의 동창인 홍경애와 불륜, 딸을 얻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다른 여자들과도 불륜을 많이 저지른다.
- (3) 조덕기(손)는 일본에 유학하는 중 방학에 귀국하여 병화를 만난다. (병화는 덕기를 부르주아라고 비꼬기도 하는데, 덕기는 심적으로는 동조하지만, 병화처럼 마르크스 주의자/운동가는 아니다. 법과를 졸업하고 판사/변호사를 하려는 생각. 병화는 목사인 아버지와 충돌이 잦고 싸우는 편 Vs 덕기는 직접적 충돌은 피하는 편. / 병화가 소개해준 필순과 연정을 느낀다.
- (4) 조 의관(할)이 조덕기(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 하자, 조상훈(아들)과 수원집(어린 첩)은 비상이 걸린다. → 수원집은 유서를 조작하고 결국 조의관을 독살하게 되는 데, 조의관은 죽기 직전에 연락이 간신히 닿아 만난 조덕기에게 금고 열쇠를 맡기며 재산을 넘긴다.
- (5) 재산 상속의 갈등, 사업의 자금 출처, 사회주의 운동 사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지만 풀려나온 덕기는 앞으로 어떻게 조 의관의 사업 등을 이어 나갈 지 고민하게 된다.

8. 판문점 (이호철)

★ 진수(남한의 기자)가 판문점 시찰을 가서 북한의 여기자와 얘기하며 이념 장벽을 느끼고 돌아와, 훗날 분단의 상처인 판문점이 사라질 날을 상상함.

전체 줄거리

- (1) 남한의 속물적, 이기적 현실에 질린 진수(남한 기자, 주인공)는 판문점에 취재를 간다. → 북한의 젊은 여기자를 만나 우연히 남과 북 체계에 대한 대화 → 인식의 차이 (남: 자유(개인이 먼저) VS 북: 체계와 정의(국가/집단이 먼저))
- (2) 판문점 회담이 대화가 되지 않음. → 갑작스러운 소나기 → 소속이 불분명한 지프차에 타서 대화를 하며 서로의 인간적인 내면을 확인하게 됨. → 서울로 돌아와 북한의 여기자와 이야기하는 상상을 계속 함.: 화해 가능성 암시.

9. 꺼삐딴 리 (전광용)

★ '이인국 박사(의사)'의 기회주의적 처세술(친일파 → 친소파 → 친미파) / 현재와 과거 회상이 번갈아가며 역순행적 구성
*꺼삐딴 리(captain Lee): 소련 간부가 이인국 박사를 부르던 호칭

전체 줄거리

- (1) [현재-친미] 미국행을 위해 미대사관 브라운에게 고려청자(뇌물)을 건네주러 가는 길, **회중시계**(이인국 박사의 부적같은 물건. 일왕의 하사: 반민족적 사고/ 과거 회상의 매개체)를 보며 회상.
- (2) [과거-친일] 일제 강점기(대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친일 혐의로 소련군에게 잡혀 감옥에 갇힘.
- (3) [과거-친소] 소련군 간부인 스텐코프 소좌의 수술을 성공하며 친소파가 되어 빼앗겼던 회중시계도 돌려받음.
- (4) [현재-친미] 1.4 후퇴 후 월남하여 영어를 배워 친미파가 되고, 미국인 교수의 도움으로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
- (5) [현재-친미] 브라운의 집에 가니 무수한 뇌물들(문화재들)이 있었다. → 죄책감이 아닌, 자신의 뇌물이 밀려날까 걱정한다. → 브라운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이인국은 브라운의 협조를 얻어 미국 행 준비를 마치며 흡족해한다.

10.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승옥)

★ 제목대로 '나'가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는 행동과 생각에 대한 소설. '나'와 누이는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 누이를 희망을 가지고 도시에 보냈지만, 누이는 좌절과 상처를 안고 2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옴 +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침묵함.

★ 고향 : **황혼과 태풍**이 있는 공간(+:전원적이고 정이 있음, -:변화가 없고 수동적) / 영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는 공간

★ 도시 : 희망을 품고 가지만, 개인주의와 군중 속 고독으로 괴로운 공간/ 누이를 침묵하게 한 공간

전체 줄거리(배경 : 1960년대 산업화)

- (1) [1장 "축전"] '나'는 누이의 출산을 축하하는 전보를 보낸다.(역순행적 구성)
- (2) [2장 "프로필"] '나'는 도시로 떠난 후 서울에서 위선적인 사람('작자')를 만난다.
- (3) [3장 "갈대들이 들려준 이야기"] 도시에 갔다가 2년만에 돌아온 누이는 침묵과 울음으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일축함. '나'와 어머니는 누이의 상처를 궁금해하고 치유해주고 싶어 한다.
- (4) [4장 "누이의 결혼"] 고향에 있던 누이가 '태양으로 그을린' 시골 청년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 (5) [5장 "일지초"] '나'가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며 감정의 기술을 배운다. ('나'또한 도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도시에 실망하면서 동시에 도시적 습성을 익히려는 태도로 살아감.)
- (6) [6장 "다시 축전"] 누이의 아이가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11. 회색 눈사람 (최윤)

- ★ 제목[회색 : 시대의 암울함 / 중간자적 주인공의 입장 + 눈사람 : 흰, 여럿→ 순수함 / 눈사람 → 지속성X]
- ★ '여권'의 의미 : 중간자적 위치(보통 사람들의 태도)에서 '김희진'의 도피를 도우며 정신적인 성장의 의미

전체 줄거리(배경 : 1970년대 유신 독재 체제 _ 박정희 _ 속에서 지하 운동)

- (1) '나'(강하원)은 뉴욕에서 '강하원'이라는 여성이 아사(餓死)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며 20년 전, 대학 시절의 인쇄소를 떠올린다. (뉴욕에서 죽은 '강하원'은 '나'의 여권을 가진 김희진)
- (2)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이모의 돈을 훔쳐 대학에 등록한 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재를 헌책방에 팔며 지낸다. 헌책방 주인의 소개로 인쇄소를 경영하는 '안'이라는 남자를 만나, 휴학 후 인쇄소 일을 하게 된다.
- (3) '안'의 정체를 알 수 없던 중 자정이 넘어 인쇄소를 갔다가 '안'이 지하 운동 조직의 직원임을 알게 되고, '안'은 '나'에게 인쇄소 일 대신 조직의 일을 맡을 것을 제안한다. 조직의 일을 하지만 시킨 일 이외에는 하지 않고, 세 사람과 필요 이상의 접촉 또한 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한다.(회색)
- (4) 지하조직이 발각되고, 그리움과 불안함을 갖고 기다리던 '나'에게 '안'은 '김희진'이라는 여자에게 '나'의 여권이 필요하다며 편지와 함께 '김희진'을 보낸다. (발각되기 전 '안'은 '나'에게 안전 상 조직의 일에서 손을 뗄 것을 권유) '나'는 김희진을 간호하고 여권을 주어 미국으로 보낸다. → '안'에게 고맙다는 엽서를 받는다.
- (5) 조직이 발각되던 날 만들었던 눈사람을 동네 아이들과 만들어볼 생각을 하며 기차를 타고 시골로 떠난다.

12. 우울한 귀향 (이동하)

- ★ 액자식 구성 : [액자 외부] 1인칭 주인공 시점 문학도인 '나'(윤)가 서울에서의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귀향하여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함 → 작품을 완성하고 서울로 돌아가지만, '나'는 학운의 죽음, 은아의 눈물과 마주하며 방향이 빨리 끝나기 바램. [액자 내부] 3인칭 관찰자 시점 어린시절 윤과 철이네, 순임네의 비극 이야기
- ★ 공간1(배꼽마당) : 순임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곳, 마을 사람들의 공포 / 공간2(공작의 세계) : 마을과 사람들의 인형화

전체 줄거리

- (1) [액자 밖] 문학도인 '나'와 학운은 문학의 현실 개선에 무용임을 생각하며 허무감을 느낌. 가난한 문학도에게 시집을 보낼 수 없다는 은아의 아버지. → 여러가지 갈등과 우울함의 도피로 친구 건호의 편지를 받고 귀향하여 자신의 어린시절(윤)의 이야기를(배꼽마당의 비극) 소설로 쓰며 과거의 상처를 객관화 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갖는다.
- (2) [액자 안] 마을의 구장이며 부유했던 순임네 아버지는 철이네를 괴롭힘. → 철이 형이 빨치산을 불러들여 복수 (순임 아버지가 배꼽마당에서 죽음) → 두 집안 몰락, 순임은 중에게 시집을, 철이는 마을을 떠남 → 윤('나')는 우울증 → 삼촌의 입대로 인간의 가능성에 희망 → 삼촌은 강도가 되어 돌아옴 → 윤은 다시 실망
- (3) [액자 밖] 서울로 돌아옴. → 은아에게 친구 학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 '더 이상 방향할 수 없다!' 생각함

13. 중국인 거리 (오정희)

- ★ 노란빛 해인초 끓이는 냄새(회충약) : '나'의 성장기의 혼란함과 몽롱함/ 중국인 거리의 불안한 분위기/ 냄새의 시각화
- ★ '나'가 다양한 사람들(주체적X/ 불행함)을 관찰하며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하는 성장소설

주요 인물 : '나', 치옥이, 양공주 언니, 할머니, 어머니

'나' : 치옥과 친하게 지냄/ 어머니의 8번째 임신을 보며 죽을 것 같아 두려움/ 할머니를 그리워함/

'나'의 생리: 어머니의 8번째 출산과 동시에 시작하며, 할머니 임종 후 정신적 및 소녀에서 여성으로의 육체적 성장

치옥이 : '나'의 친구/ *양공주를 희망/ 아버지의 사고 후 가족과 따로 미장원에서 지냄

양공주 언니: 치옥의 윗집/ 백인 혼혈 제니(장애를 가진 딸)/ 국제 결혼을 위해 흑인 병사와 동거 중 그에게 살해당함.

어머니 : 8번째 임신과 출산으로 고통스러워 함/ 할머니의 조카(할머니 동생의 딸)

할머니 : 양공주를 혐오→ 동네에서 유일하게 양공주에 세X/ 할아버지의 불륜으로 결혼 실패(자신의 동생을 첩으로)

전체 줄거리(배경 : 6.25 직후 인천 중국인 거리)

6.25 휴전 후, 노란 해인초 끓이는 냄새가 가득한 중국인 거리로 이사를 온 9살의 '나'는 치옥과 친한 친구가 된다. 치옥과 치옥의 윗집에 세들어 사는 양공주 언니의 방에서 언니의 화장품, 옷 등을 구경하다가 술도 마셔본다. 어머니의 임신에 '나'는 계속 걱정을 하고, 할머니는 쓰러져 시골로 내려가신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할머니의 유품을 만져보며 그리워한다. '나'는 6학년이 되고, 아버지의 사고 이후 미용실에서 지내는 치옥을 보고, 지나며 예전 눈을 마주쳤던 중국인 청년에게 선물을 받는다. 어머니의 여덟 번째 출산일날, '나'는 초경을 경험한다.

*양공주 : 주한 미군에게 매춘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임을 이르는 속칭.

14. 자전거 도둑 (김소진)**전체 줄거리**

- (1) '나'는 자신의 자전거를 훔쳐서 타는 서미혜를 발견하고 영화 '자전거 도둑'을 떠올린다. '나'는 그 영화의 초라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의 아들 '브루노'와 '나'의 부자(父子)가 겹쳐 보여,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 (2) (회상) 어린 시절, 작은 구멍가게 주인인 아버지는 도매상 흑부리 영감의 부당한 요구에도 항의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주 2병을 덜 받았다. 아버지는 덜 받은 소주 2병을 훔치다가 걸릴 위기에 '나'는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흑부리 영감의 요구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와 그 영감에게 분노를 느낀다.
 - (3) 하수구로 몰래 흑부리 영감의 수도상회로 잠입한 '나'는 영감의 물건을 모조리 망쳐 놓고 돈궤안에 똥을 싸지름.;;)
 - (4) 흑부리 영감은 그 충격으로 죽음에 이른다. // 서미혜 역시 비슷하게, 어린 시절, 간질 환자인 오빠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하자, 그 복수로 다락방에 방치하고 밥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책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됨. → 그 후 미혜를 피하는데 나중에 미혜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됨.
- ★ 나와 서미혜의 공통점 : 복수 // <차이점> 나 : 강자(흑부리영감)에 대한 복수 → 상처는 치유, 문제 행동X / 서미혜 : 약자(간질 환자)에 대한 복수 → 상처가 치유 없이 끝없는 죄책감 → 자전거를 훔치는 죄책감으로 오빠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기형적 문제 행동으로 남음.
- ★ 영화 자전거 도둑(줄거리) : 가난한 안토니오(아버지)는 일자리를 위한 자전거를 도둑 맞고 직접 도둑을 찾아낸다. 그러나 도둑은 간질에 걸린 가난한 청년이라 안토니오는 그를 놔두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린다. 주인이 봐주긴 했지만 그 모든 행적을 아들 브루노가 보게 된다.

15. 금 따는 콩밭 (김유정)**전체 줄거리(1930년대 궁핍한 농촌 & 금광 열풍)**

- (1) 성실한 소작인 영식(주인공)에게 금을 찾아 다니는 친구 수재가 콩밭을 파면 금줄이 있을 것이라고 부추긴다. → 영식의 아내 또한 영식을 부추긴다. → 영식은 애써 가꾼 콩밭을 뒤엎고 금을 찾기 시작한다.
- (2) 밭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아내는 영식을 질책한다. → 마음이 조급한 영식은 빗을 내서 제사도 지낸다.
- (3) 금이 나오지 않자 수재와 갈등이 생긴다. → 수재는 금줄을 찾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마을에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는다.

16. 난쏘공 (조세희)

주요 인물 :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 재개발로 철거 계고장을 받음. 입주권을 팔아야 함.

★1장은 영수, 2장은 영호, 3장은 영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

아버지(난쟁이) : 평생 굶은 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병으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낸다. 이상세계(달나라)를 갈망.

작은 공 : 난쟁이(아버지)가 갈망하던 이상세계(평등하고 행복한 달나라)를 의미 →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 : 가족에 헌신하는 인물

영수 : 첫째 아들, 인쇄소에서 일하며 공부하고, 동생도 공부를 시킴.

영호 : 둘째 아들, 아버지가 병에 걸린 후,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함.

영희 : 막내 딸, 투기업자에게 자신의 순결을 잃으며 입주권을 되찾아 온다. → 그 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지섭 : 고급주택에서 가정교사 / 아버지에게 도덕성과 사랑이 살아있는 달나라를 이야기 함. "일만년후의세계" 책을 빌려줌.

전체 줄거리(1970년대 산업화, 소외된 빈민 계층, 낙원구 행복동, 빈민 판자촌)

- (1) [1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계고장을 받는다. → 아버지가 병에 걸린다. → 영수는 인쇄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돕고, 영호와 영희는 차례로 학교를 그만둔다. 아버지는 지섭에게 빌려온 책을 두고 사라진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려고 불안해하고, 영수는 "일만년후의세계" 책을 보며 '달나라로 떠나야 한다, 이 땅은 죽은 땅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대화를 떠올린다.
- (2) [2부] 철거는 끝나고, 입주권이 있어도 돈이 없는 주민들은 투기업자에게 싼 값에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난쟁이가 가족도 입주권을 팔지만 거리로 나왔을 처지가 된다.
- (3) [3부] 투기업자를 따라간 영희는 그에게 순결을 잃고, 그를 마취시킨 후 입주권과 돈을 훔쳐 동사무소로 가서 서류 신청을 마치고 돌아온다. →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됨을 듣는다.

17. 조동관 약전 (성석제)

★조동관(은척의 강패, "똥간") ★경찰서장(은척에 새로 부임한 서장. 똥간에게 호통을 치다가 수컷물에 던져지자 공권력을 총동원해 동관을 체포하려 함.)

전체 줄거리

- [1] 은척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망나니인 똥간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여인이 떠나가자, 난동을 부린다. 파출소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기동타격대는 똥간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가 지쳐 잠든 후에야 감옥에 겨우 넣는다.
- [2] 출소한 똥간은 여인을 찾아 해마다 슬퍼하다가 역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새로 부임해 순찰을 돌던 경찰서장이 호통을 친다. → 똥간은 그를 집어 수컷물에 던진다.
- [3] 화가 난 경찰서장은 공권력을 전부 동원하여 그를 잡으려 하고, 그는 야산의 동굴에서 끝내 얼어 죽는다. 죽은 그의 시체를 들고 내려오는 기동 타격대는 은척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경찰서장은 똥간과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죽은 경찰관의 충렬비를 세우고 제막식까지 지낸다.

18. 뉴욕제과점 (김연수)

★'나'는 뉴욕 제과점의 막내 아들 / '이 소설 만큼은 연필로 쓰기로 했다'

'나'는 빵집 아들이었지만 빵을 맘대로 먹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레빠시(카르테라 부스리기)는 먹을 수 있었다. 카스테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고, 기레빠시는 맛있었다. 하지만 자주 먹을 수 있는 기레빠시는 쉽게 질렸고, 과하면 질려버리는 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의 빵집과 기레빠시의 추억은 마음속에 작은 '불빛'으로 남아 있는데, 자기 안의 불빛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대가 바뀌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이 들어서자 뉴욕제과점은 문을 닫는다. 상실감을 느끼던 '나'는 → 어느 명절에 뉴욕제과점 자리에 생긴 국밥집에서 과거 기억을 떠올리다가 문득 뉴욕제과점은 가슴속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19. 장삼이사* (최명익)

*장삼이사(張三李四) : 중국에서 가장 흔한 두 성씨(장씨와 이씨) :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씨의 셋째 혹은 이씨의 넷째라는 뜻으로 **평범한 아무개**를 뜻한다.

전체 줄거리(기차 안_삼등 차간: 하층민들이 앉는 곳, 평범한 하층민 사람들의 삶의 애환)

- (1) 사람이 붐비는 **기차가 출발**하고, '나'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 **한 농촌 젊은이가 생각없이 뺨은 침이 '나'와 마주앉은 중년 신사의 구두에 떨어진다.** → 극대노하며 젊은이가 내민 휴지(신문지)를 무시하고, 발작적으로 반응 → 사람들은 다 언짢아 하지만, 중년 신사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함.
- (2) **차표 검사**를 하는데, 중년 남자의 옆에 있던 **여자는** 그가 자신의 표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표가 없다고 한다. '당고 바지'와 '가죽 재킷'이 중년 신사에 대해 험담을 하지만, 그가 돌아오니 아무 말 못한다. 중년 신사는 자신이 **여자 장사를** 하는데, **도망친 여자 잡기가 힘들다**며 당당히 얘기하고 사람들은 동조한다.
- (3) S역에 도착하자, **한 청년**이 중년 신사에게 다가와 '옥주년'이 도망쳤다고 하고, 청년은 뺨을 맞는다. 잡아온 여자를 넘겨받고 **신사 대신 기차에 오른 청년은 여자의 뺨을 때린다.** '나'와 눈이 마주치고 눈물을 참던 여자가 변소에 가고, '나'는 여자가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여자는 화장까지 고치고 돌아와 '옥주년도 잡혔어요?'하고 청년에게 묻고 만나면 즐거울 것이라고 한다. '나'는 여자가 무사함에 안심하면서도 그녀의 끈질긴 현실 인식과 살아가는 방법에 당황하며 웃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든다.

20. 눈길 (이청준)

★액자식 구성 : **외부**['나'의 냉소적 말투, 어머니(노인)에 대해 무심함]

내부[어머니와 아내의 대화 :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

★아내 : 어머니와 '나'를 화해시키려고 함 : 어머니와의 대화를 '나'에게 간접적으로 듣게 하는 매개체

전체 줄거리(이청준의 자전적 소설이라. 형이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유사하다고 함)

- (1) 고향 집에 내려간 '나'는 노인(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며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형의 노름과 술버릇으로 집이 몰락한 후, 형은 죽고, 어머니와 '나'는 모자지간의 사이가 틀어져 '나'는 고단하게 자수성가를 하였고, 어머니(노인)에게는 빛이 없다고 생각한다.) → 어머니는 조심스러워 하며 알겠다고 함.
- (2) 마을의 지붕 개량 사업으로, **어머니가 조심스레 지붕을 고치고 싶은 소망**을 내비치자 '나'는 어머니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시한다.** → 사실은 예전의 이야기를 피했던 것.
- (3) 막걸리를 먹고 잠들었던 '나'는 깨어나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듣게 된다. 어머니는 겨울방학에 내려왔던 '내'가 이미 팔린 집에서(형의 가사 탕진으로 집을 팔았음)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안방 한쪽에 이불과 **옷궤**를 남겨두고, 집을 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재음. → 다음날 눈 내리는 산길을 같이 걸어가 차부까지 데려다준 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발자국을 다시 보며** 돌아왔다. → 잠든 채하고 이야기를 들던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21.소망(少妄)* (채만식)

*소망 : 젊을 소 + 망령될 망 : 젊은 나이에 미치다 → '나'가 보는 남편의 상태 (반어적 의미 : 남편은 깨어 있는 인물)

전체 줄거리(일제 시대)

- (1) '나'는 동경에서 대학을 다니던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은 **서울에서 신문사에 취직**을 한다. 어느 날 남편은 신문 기자가 힘들다며 **사표**를 내고 건넌방에 누워 책과 신문, 잡지만 읽는다.
 - (2) 더운 여름, 남편을 걱정한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초대하지만, 가지 않겠다고 하고, **서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설득을 하니 '나'를 '**하등 생물**'이라며 무시한다. (현실 인식이 부족한 '나'를 비판) '세상이 통째루 새가가 병그러지는 판인데, 부부고 자식이고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한다. ← '나'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감.
 - (3) 한 낮에 **까만 겨울 양복과 겨울 모자를 쓰고 종로 한복판**에 서 있는 이상 행동을 한다. (왜곡된 시대 현실: 일제 시대에 반하여 저항하는 시대적 의무와 고통을 감내하는 수단. 남편의 현실 인식과 도덕성)
 - (4) 이상 행동을 하는 남편에 대해 의사 형부에게 정신과 의사를 소개 받기 위해 언니에게 가서 하소연을 한다.(1인칭 독백체: 언니의 대사는 모두 생략)
- ★ 신문 기자였던 남편은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멸을 걱정하며 언론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문사를 나 온다. 그리고 '나' 등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며 약소국 침략에 대한 비판 의식을 소극적으로 표출한다.

22.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박완서)

- ★ **형님 = 통곡의 벽**(이스라엘에 있는 성벽 : 유대인들이 울며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림) : '**나'가 의지하는, 하소연 하는..**
- ★ 현재(형님과 통화) → 과거('나'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치매까지 걸린 동창의 아들의 병문안**에 갔다가 느꼈던 생각을 전화로 이야기 함) : 역순행적 구조

전체 줄거리('나'의 집 : 1인칭 독백체)

- (1)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나'의 **대학생 아들이 쇠 파이프에 맞아 죽는다**. (괴로움에 아들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물건을 사고 꾸미며 가짜 재미를 좇아 살았다)
- (2) 형님에게 전화가 옴! '나'는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친한 동창인 명애가 찾아와, **다른 동창 친구의 아들의 병문안**을 갔다. → 아들을 병간호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동창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다른 이의 손길에 괴성을 지르며 거부하는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크게 운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나'의 삶의 중요도가 바뀌었다. (소유욕을 잃어버림) → "생때 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더 이상 외면 않고 건강하게 극복하고자 하게 됨.) → "**창환아 에미 왔다**" 라고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 건네는 말: 아들로 집안이 가득 참을 느낌. [여기 까지가 전화통화]/ [그 후 형님이 울면서 같이 공감해줌] "세상에 형님이 우신대요?" → "형님은 언제나 저에게 통곡의 벽이었으니까요.... 통곡의 벽이 우는 법이 세상에 어디있대요."

- ★ **제목('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 김현승의 [눈물] 시의 첫 구절** : 시인의 어린 아들을 잃고 쓴 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 오직 이뿐! //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 열매를 맺게하신 당신은, //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수능완성-

1. 잉여 인간 (손창섭)

주요 인물 : 서만기와 친구들(채익준과 천봉우), 봉우 아내, 홍인숙

서만기 : 치과의사, 책임감 (친구들과 대비되는 주인공) / 봉우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뿌리침

채익준 : (잉여인간1) 맘에 들지 않는 신문 기사를 보며 격노 /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 무능력 → 안정된 직장X → 극빈
→ 아내가 생활고로 죽음에 이름 /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아내가 죽은 후 장례 때 돌아옴

천봉우 : (잉여인간2) 6.25 한국전쟁 중 가족을 모두 잃음 → 생활력과 의욕 상실 / 만성 수면 장애로 하루 종일 깨지도 잠
들지도 못한 상태 / 아내에 기생하여 살아감 / 만기의 치과의 간호원 홍인숙을 사랑함 / 아내는 문란

홍인숙 : 만기 병원의 간호사 / 봉우가 사모하는 존재 / 만기의 병원이 위험할 때 자신의 월급을 건네며 병원 개업에 보태
라고 하는 마음 착한 인물

봉우 아내 : 봉우와는 형식적 결혼 유지 / 만기를 유혹하다가 되지 않자 병원을 비워 달라고 함

전체 줄거리(6.25 이후)

- (1) 중학 동창인 익준과 봉우는 만기 치과에서 지내는 두 잉여인간이다. → 봉우는 홍인숙(간호원)을 짝사랑하고 몰래 뒤를 따라다니지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그럴 용기도 없다. 봉우의 부인은 서만기를 건물 증축을 이유로 석달 치 월세를 미리 내라고 하다가, 요리집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밥 시중을 하며 몇 년이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
- (2) 유혹을 뿌리친 만기는 병원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될 지 고민한다. → 익준의 아들이 와서는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전한다. → 익준은 직장이 없어 아내가 생선을 내다 팔며 생계를 이었다. / 익준은 친구들에게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 인숙이 봉우가 스토커 같아서 미칠 것 같다고 하고, 만기는 잘 말하겠다고 타이른다. / (삼 사 년 간 만기는 처가 식구들까지 보살폈는데, '은주'는 형부인 만기를 사모하게 된다. 결혼을 서두르지만 그녀는 만기만을 사랑하며 깨끗이 늙겠다며 만기를 난감하게 만든다.)
- (3) 일주일만에 병원을 비우라고 봉우 아내가 통지를 하고, 홍인숙이 뜻밖에 50만환을 주며 병원을 차리라며 눈물을 흘린다. 만기는 거기서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보고 다시 한 번 마음 불편해한다.
- (4) 익준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고, 만기는 봉우 아내에게 돈을 빌려 익준 아내의 장례를 치른다. → 일하러 떠났던 익준이 돌아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상복을 입은 어린 아들과 마주한다.

2. 회색인 (최인훈)

전체 줄거리(4.19 혁명 직전/ 현실 적응 못하는 젊은 지식인의 소외)

- (1) (북에 어머니와 누이를 두고 월남한 독고 준(주인공)은 먼저 월남하였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병으로 아버지를 잃고 단신이 된다.) 독고 준(국문학도, 글을 씀)의 하숙집으로 친구인 김학(정치학과)이 찾아와, [감한 세대] 동인지에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한다.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회의적인 독고 준과 급진적인 행동주의자인 김학은 논쟁을 벌인다. (들어가지 않았음)
- (2) 김학을 돌려보낸 후 독고 준은 회상과 상상의 관념의 여행을 떠난다. 부서진 학교, 월남한 아버지, 남편(현호성)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누이와 이유도 모른 채 지도원 선생에게 괴롭힘 당하는 자신의 모습(회상)과 현실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 (3) 생활고를 겪던 독고 준은 매형이었던 현호성의 노동당원증을 찾아, 누이를 배신하고 월남한 후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유당의 당원으로 출세하여 살아가는 그를 만난다. 현호성의 집에서 숙식과 등록금을 해결하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현호성의 처제는 이유정을 만나 연정을 품는다. (한때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김순임을 사랑) 와중에 이데올로기나 기성 윤리를 거부하면서도 현실과 타협하고, 그러한 상념만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지친다. 그리고 "소설을 쓴다"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그는 "신이니까" (← 소설쓰기를 통한 자기 합리화)
- (4) 김학이 어느날 다시 독고 준을 찾아오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김순임의 이야기가 나오자 갑분싸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김학은 늦었다며 돌아간다. 독고 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유정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3. 태형 (김동인)

전체 줄거리(3.1 운동 직후, 무더운 여름, 5평도 안되는 작은 감방에 40여명의 투옥)

- (1) 좁디 좁은 감방에서 힘겹게 지낸다. '나'는 3개월 넘게 공판만을 기다리며 자유와 독립 따위가 아닌 냉수 한 모금이 절실하다. → 진찰실에 다녀온 '나'는 **70대 영원 영감이 태형 90대를 선고받았고, 태형을 받고 감방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넓은 공간!), 공소(=항소)한** 소식을 듣고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영감에 분노하는 여론을 만든다.
- (2) 압박을 이기지 못한 영원 영감이 '나'에게 공소를 취하할 테니 간수를 불러 달라고 하고, 영감이 끌려 나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방이 조금 넓어졌다는 기쁨이 어렸다. → '나'로 인해 매를 맞는 영감의 비명에 '나'는 죄책감에 휩싸인다.

4. 후송 (서정인)

전체 줄거리(시간 순_원래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

성 중위(주인공)는 부대로 복귀 중 군용차에 얻어 타고자 손을 흔들지만, 차는 그냥 지나간다. → 순간 그 차를 저주했던 그는 군용차가 전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뒤로 돌아와서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 → 45권총 150발(3박스)를 빈 강통에 쏘아 대며 괴로움을 표출한다. → 그 이후로 티아니투스 라는 이명 증상으로 불편하여 후송조치를 요청한다. → 그러나 매번 퇴짜를 맞는다. → 근무지에서 친해진 의무참모(성 중위와 대학 동문) 덕분에 검사 의견서를 받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을 입원 거부나 후송이 지연되지만, (답답해 산책을 나갔는데 군용차 한 대를 보며 과거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검사 의견서 덕분에 결국 후방병원으로 후송된다.

5. 노을 (김원일)

주요 인물 : '나'(김갑수), 아버지(김삼조), 배도수, 치모, 삼촌

'나'(김갑수) : 40대의 출판사 편집국장, 좌익 폭동의 앞잡이였던 **아버지(김삼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난을 당하고, 최근에도 어떤 기관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다. 과거를 지우고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소시민적 태도로 살아왔던 그는 과거의 망령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삼촌이 돌아가신 것과 맞물려, 더 이상 도망치고 외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과거와 마주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동생 : **김갑득**) (+아들 : **현구**)

삼촌 :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고.. 별세했다는 소식으로 '나'의 29년만의 귀향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버지(김삼조) : '멀시받는 백정'이었던 그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일에 끼여들었더니 ... 지주 땅을" 똑같이 분배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좌익 폭동의 앞잡이로서 이용된다. **아내('나'의 어머니)**는 매질을 견디다가 도망가고, **외삼촌** 또한 비슷하게 좌익 폭동에 가담하였다가 총살되고, 그 충격으로 **외할머니**까지 강에 투신하여 자살한다.

배도수 : 좌익 폭동의 주동자로, 최근 '나'의 심문의 이유를 제공한 사람. 전향하여 고향에서 안락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치모 :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긍정적 시선을 가져야만 통일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서울 공대 재학 중 데모를 하다가 제적당한다. '나'의 새로운 방향의 현실 인식을 돕는 인물. (+父: **이중달**)

전체 줄거리

- (1) **출판사 편집국장인 '나'**는 **외삼촌의 별세**소식에 29년만에 귀향한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서술. 백정 → 해방 후 좌익 폭동의 앞잡이_ 사람 백정 → 산으로 도망)
- (2) 최근 배도수가 찾아와 재일 교포인 '**진필재**'의 저서 출판을 알선하려고 했다. → 배도수는 그를 **민단(대한민국 측 재일동포)** 측 사람으로 착각했으나 사실은 **조총련(북한 측)** 소속이었다. → 형사가 찾아오고, 신문을 당하며 그는 **"아버지가 망령이 되어 ... 불쑥 나타났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3) 삼촌의 영전에 모여 배도수의 근황도 듣게 된다: 전향하여 이 곳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음.
- (4)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과거를 마주해 생각하며 '나'는 **아버지** 또한 사회 상황의 피해자였음을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 고향을 떠나기 전 배도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울로 돌아온다. 서울로 돌아와서 '나'의 과거의 고통과 저주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한다

★노을에 대한 인식 변화 : 고향을 방문 하기 전의 '나'의 노을 [핏빛] → 귀향 후 아버지를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후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찬란한 무지갯빛]